IB 교육 도입 서 교육감 행보 '속도'

전북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와 협력각서 체결… IB 프로그램 한국어화 등 협력 강화

IB 교육 도입을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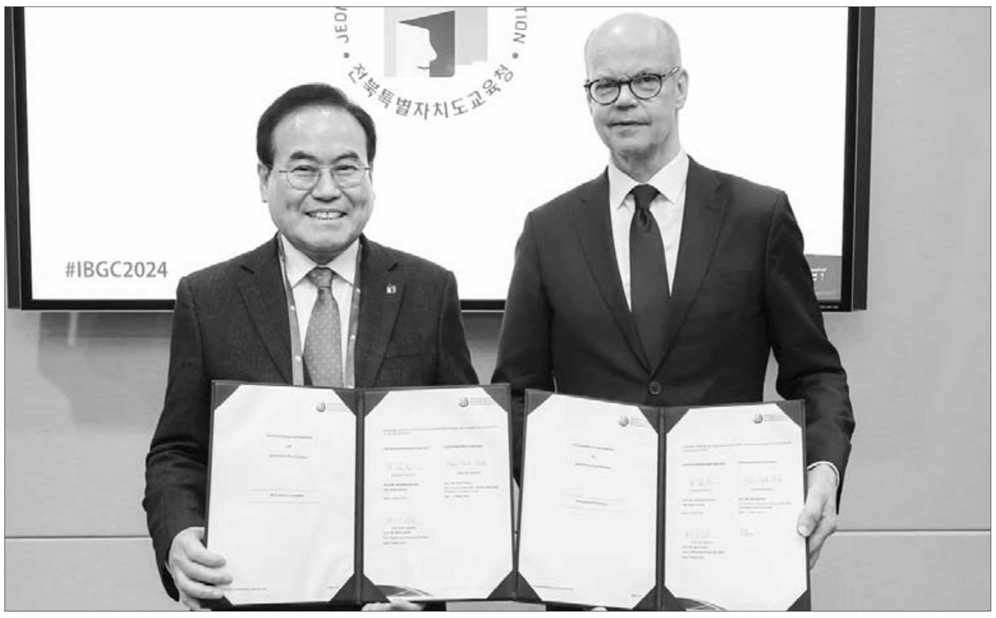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IB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와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 교육감과 올리페카 하이너넨 사무총장은 IB 프로그램 한국어화 및 교원 역량강화 활동 등을 담은 협력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협력각서(MOC)는 국가 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로, 양해각서로 불리는 MOU보다 세분화 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이날 MOC 체결식에는 IB 한국어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4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했다.

MOC 체결 이후 전북·서울·인천·대구·경기·충남·제주 등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7개 시·도 교육감과 IBO 관계자들이 IB 교육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IBO와 MOC 체결 시도교육청 간 국내 IB 교육 관련 협력 강화 △교원 전문성 개발(PD)을 위한 IB 한국어 워크숍 확대 개설 △IB 한국어 번역 가속화 및 대학 인식개선 사업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21일 대구에서 열린 IB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올리페카 하이너넨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 사무총장과와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이날 MOC 체결을 통해 IB 프로그램 한국어화, IB 워크숍 국내 개최, IB 전문가 양성 등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IB는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북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침운동으로 신명나는 하루를'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부터 도내 205개교서 아침 체육활동 프로그램 진행… 조깅 · 축구 등

"아침 운동으로 신명나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월부터 도내 205개교에서 아침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중 하나인 '아침운동 신명나게!(아신나)' 는 아침 체육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교시 시작 전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활기차고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아침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뇌파 향상으로 집중력도 높아져 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113개교, 중학교 65개교, 고등학교 27개교 등 총 205개교에 1교당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도록 했다.

운영 형태도 학교 규모를 고려한 전체활동형,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형, 365+ 체육온활동 및 건강체력교실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한 등굣길 운동장 조깅, 줄넘기, 학급별 축구 리그 경기, 배드민턴 리그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아침 운동으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면 긍정적인 하루를 만들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체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이해와 타협,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다문화학생 한국어 능력 '쑥쑥'

전북자치도교육청, 찾아가는 1:1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한 130여명 강사 인력풀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찾아가는 1:1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학생은 9,281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59%를 차지한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이 증가하면서 한국어교육 지원 학생도 2020년 66명, 2012년 114명, 2022년 127명, 2023년 18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강화했다.

한국어교육은 위탁기관과 협력해 신청학교 방문 및 한국어능력 진단을 통해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도내 전 지역의 원활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130여 명의 강사 인력풀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4년 한국어교육 신청은 2월 정시 모집을 통해 140여 명이 지원했다. 또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한 신청을 상시로 받고 있다.

한편 한국어교육 이수 후 한국어능력 재진단 평가 결과 및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장 지원에 따른 연중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정책 이해 · 공감대 확산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공개강좌… 12월까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개강좌 '함께하면 더 특별한 공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상시 운영해 온 '지방공무원 6급 장기교육훈련' 교육과정의 정책 관련 교과목을 공개강좌로 확대한 것으로, 일반 교육행정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특히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의 교육과정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정책의 빠른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공개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첫 강의는 오는 29일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이란?'으로 시작된다.

이어 △4월 30일 '챗GPT 이후의 인류' △5월 10일 '정책보고서 잘 쓰는 법' △5월 30일 '살면서 공부가 필요한 이유' 등 주로 전북교육정책 현안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향상에 중점을 뒀다.

문병기 원장은 "공개강좌를 통해 전북교육정책이 현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빠르게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특성화고 · 글로컬대학 협력체계 구축

전주대, 한국치즈과학고와 협약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1일 대학 본관에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협약형 특성화고 및 글로컬대학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김윤하 교장이 전주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전주대학교 이해원 산학부총장과 김상진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특성화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고교 간 연계 체계 구축 △학교 교육 내실화 지원프로그램 참여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양성 등이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1일 대학 본관에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단 김상진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환경보건 교육 체계화 '맞손'

전북자치도 환경보건센터, 환경교육센터와 협약

전북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센터장 손정우)는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와 환경보건 교육 체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는 전북지역의 환경보건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3월 전북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다.

또 전북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지원하는 광역단위 전문 환경교육기관으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가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환경강사 및 보건 교사 인력의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환경보건 인식 향상과 표준화된 환경보건 교육으로 취약 인구 맞춤형 환경보건 교육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21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박노준 우석대 총장과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석대 한국소방시설협회와 '맞손'

인 · 물적 자원 교류 등 추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은 21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협회장 박현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오석흥 부총장, 임재윤 기획처장, 정희석 산학협력단장, 서용성 사무처장, 소방방재학과 교수진이, 한국소방시설협회 박현석 협회장과 백부현 전북도회장, 명석범 회원지원본부장, 이용훈 경영기획실장, 임동균 전북도회국장, 신상호 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 교류 △주요 시책 홍보활동 협력 △우수 인재양성 지원 및 취업지원 △각종 기획 및 프로젝트사업 공동참여 △연구과제 공동연구 및 공동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합한다면 소방산업 발전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협력 분야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협회장은 "우석대학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방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21일 문화관 4층 세미나실에서 상반기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석대 대학일자리본부, 상반기 채용설명회

'일양약품 취UP 하자' 주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21일 문화관 4층 세미나실에서 상반기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주) 취UP 하자'라는 주제로 여린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담당자로부터 기업 소개와 채용 관련 안내 등을 듣고,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히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AI설루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적성검사 대비 교육과 함께 컨설팅과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심재광 대학일자리본부장은 "해당기업과 희망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채용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 대학교의 학과 맞춤 기업을 섭외해 채용설명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